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27일 목요일 음 7월 9일 (1물)

기상정보

호리고 비



호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28°C, 낮 최고 기온은 30-33°C를 기록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북부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2.0-6.0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80% probability for rain, clouds, and sea breeze.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6:05) and sunset (14:47).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호리고 비) and the day after (구름 많음).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risk levels (위험, 보통).

월드뉴스

공동묘지 무덤 파헤치는 러시아 야생곰들

주민들 해결책 마련 촉구

공동묘지에 침입해 무덤을 파헤치는 야생곰들 탓에 몸살을 앓고 있는 러시아 극동의 주민들이 지역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야생곰.

26일 현지 매체인 '아르구멘티 이 팩티' 등에 따르면 캄차카주 주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옐리츨스키 지역의 한 공동묘지에는 2018년부터 야생곰들이 출몰해 무덤을 파헤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책임이 있는 시 정부에 요구했다고 아르구멘티 이 팩티는 전했다. 극동에서 야생곰이 공동묘지 묘를 파헤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묘지 방문객들과 관리자들은 곰들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논란이 일자 공동묘지 관리자들은 공동묘지 주변에 전기 울타리까지 설치했다.

지난해 8월 극동 하바롭스크주 도시 콤포스콜스나야아무레 관내 시립 공동묘지에서는 야생곰이 묘를 파헤치고 시신까지 훔쳐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사살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자 현지 주민들은 야생곰들이 묘지 주변에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담을 세워달라고 최근 공동묘지의 관리

야생곰들이 시신을 파헤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극동 캄차카반도에는 2만 마리에 달하는 야생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목요일론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고, 발행한 지자체 행정구역에서만 사용가능한 화폐로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관리까지 맡게 된다.

코로나19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이끈 일부 지자체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상상을 현실로... 지역화폐로 여는 경제 활성화

됐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역화폐 발행 총액의 4%를 처음 지원하면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했고, 2020년에는 발행 총액의 8%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본다.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지역화폐 도입이 다소 늦었다고 할 수 있으나, 어쩌면 이것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 지역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주형 지역화폐의 정착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먼저 관광객의 지역화폐 사용은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최종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관 주도로 이뤄지는 지역화폐 활용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잔돈에 대한 사용이다. 지역화폐도 잔돈이 생기게 마련이며, 이것을 법정화폐로 환급해 줘야 하는 데, 환급 기준이 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 환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상상하는 지역화폐 모델이 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은 가맹점과 사용자가 많아지고, 공공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될수록 플랫폼 기업은 지역경제의 독과점이 될 수 있다.

지역화폐 도입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그러기에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끊겨도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준비와 지역에 있는 기업, 도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

열린마당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강창준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출근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가 운전기사에게 제지 당해 버스를 타지 못하는 승객을 본 기억이 있다. 아직도 주변에는 코로나19는 나와는 상관없는 인식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마스크는 비말감염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굴에 손을 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확진자의 침이 묻어있는 손잡이나 화장실 문,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누른 후에 그 손으로 입 눈 코를 만지면 감염 되지만 마스크는 그걸 막아줄 수 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신고하세요



지충한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들어가게 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얼굴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 잘 밀착하고 착용 후 걸면 만지지 말며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역학조사에서 비건간 감염이 환자가 20%를 넘어서고 있는 요즘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인 만큼 각자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작은 이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어쩌다', '운 나쁘게' 또는 '이 좁이'로 넘기기 쉽다. 작은 나사 하나가 풀렸다고 해서 커다란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사가 풀린 채 방치돼 있었다는 것은 해당 시설물의 균열이 가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작은 균열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대형 사고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작은 이상이 발생했을 때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안전신문고이다. 안전신문고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다.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사진, 발생지역, 내용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교통, 시설, 생활, 학교, 산업,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령장, 계과 같은 여름철 피서지의 위험 요소들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어려운 과정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고 처리되는지 궁금해 할 필요 없이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름철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이제부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New Air Purification' (새론공기청정) featuring 'Air Quality & Ventilation' (환기시스템)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eju City.

Advertisement for 'All Products' (모든품종) featuring 'Quality' (품질) and 'Price' (분양) with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 for Seogwi Jeongmyo.

Advertisement for 'Jeju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제주 통신기반 구축) featuring 'Responsibility' (한라가 책임집니다) and a list of services for Hanra Jeonseol.